

세, 동아시아에 환경정화 투자 촉구

동아시아 국가들은 악화되고 있는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장차 환경문제가 더 악화될 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지난 11월 19일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이날 홍콩에서 "환경은 기다릴 수 있는가. 동아시아의 최우선 과제들"이라는 새 보고서를 발표,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환경의 악화가 초래됐으며 역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성장의 대가라고 시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건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 이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깨끗한 식수의 부족과 빈약한 위생이 가장 긴급히 해결해야 될 환경 문제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심각한 공기 오염이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중국에서는 연간 수만명이 공기 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11개 도시의 경우, 주로 가정에서 태고 있는 석탄으로 인한 공기 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액은 도시민 소득의 20%에 달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우 공기와 물의 오염으로 초래되는 보건과 농업 생산 및 자연자원의 손실이 국내총생산의 8%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습지 브라질 판타날 사막화

브라질의 세계 최대 습지대가 무분별한 농경으로 인해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고 리우의 일간 글로보가 지난 11월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주요 콩생산지인 마토 그로소 도 술주에서 불이 일고 있는 농업이 홍수를 유발하고 판타날로 알려진 습지대의 중요한 강줄기인 리오 타카리의 물흐름을 바꾸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판타날은 연중 대부분 물이 차있는 광범위한 야생동물 서식지다.

브라질을 비롯,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의 14만km² 지역에 걸쳐 있는 판타날은 아메리카 표범, 큰개미핥기, 악어, 습 사슴, 수달, 6백50종에 이르는 조류, 2백40종의 어류 및 9만종 이상의 식물들의 방대한 서식지다.

이 습지대는 매년 강물을 조절하고 홍수를 예방하면서 수 백만 갤런의 물을 흡수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벌채로 홍수 물흐름이 더욱 빨라지고 수에 달하는 침적토가 타카리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으며, 이 결과 조류들이 먹이 부족으로 죽고 어류들은 질식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농업으로 인한 위협 이외에 현재 건설되고 있는 3천2백km에 달하는 수로가 판타날의 일부를 고갈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엘니뇨로 세계식량 상황 악화

엘니뇨현상으로 세계의 식량부족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12월 11일 밝혔다.

FAO는 보고서를 통해 엘니뇨현상의 영향으로 식량공급이 달려 비상구호가 필요한 국가들의 수가 점점 늘고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국가들은 모두 37개국으로 1984년 40개국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수라고 말하고 금년에 새로 추가된 국가는 아프리카의 5개국, 중미의 5개국 등 모두 11개국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엘니뇨현상이 남부아프리카에 커다란 타격을 미친다면 식량부족 위험국가는 40개국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 엘니뇨현상에 따른 가뭄으로 식량생산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일부지역은 식량사정이 좋지않아 정부가 비상식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오랜 가뭄으로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됐으며 중국도 옥수수 수확량이 크게 줄고 겨울 옥수수 재배까지 위협받고 있는 등 가뭄피해를 겪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이 보고서는 엘니뇨현상이 세계 식량 생산에 어느정도의 피해를 볼 것인지는 내년에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이에 따른 폭우와 홍수로 동부아프리카와 일부 아시아지역이 곡물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다고 말했다.

중미와 카리브해지역도 엘니뇨의 영향으로 곡물수확량이 줄어 FAO가 세계식량계획(WFP)과 합

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에 앞으로 6개월에 걸쳐 총9백40만달러의 비상식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남미의 안데스지역도 엘니뇨현상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곡물수확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 동북부지역이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가뭄은 앞으로 몇달사이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엘니뇨로 바다표범·물개 떼죽음

전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엘니뇨로 먹이가 사라져 굶주린 바다표범과 물개들이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앙상한 몸매를 드러내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난 여름이래 죽음을 당한 물개만 수천마리에 달한다.

이같은 비극은 올해 엘니뇨로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다표범이나 물개가 살기 위해 잡아먹어야 할 물고기나 오징어류 등이 주위에서 사라지는 상황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자연 서식지인 섬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샌디에이고에 이르는 해안의 여러 섬 주변에는 캘리포니아 바다표범과 물개들이 죽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바다 갈매기는 죽은 물개들을 쪼아먹고 있고 나머지 물개들은 죽은 듯이 누워있거나 겨우 몸을 가누고 있는 비극상이 계속되고 있다.

바다표범 구제에 나선 자연보호가들은 해변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바다표범 일부를 구조, 먹이를 주어 건강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립해양대기국 시애틀 지부의 보브 델롱 연구원은 이같은 현상은 비참하기는 하나 서식 바다표범 수의 한 조정국면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즉, 바다표범과 물개 모두 지난 72년이래 계속 늘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은 만만치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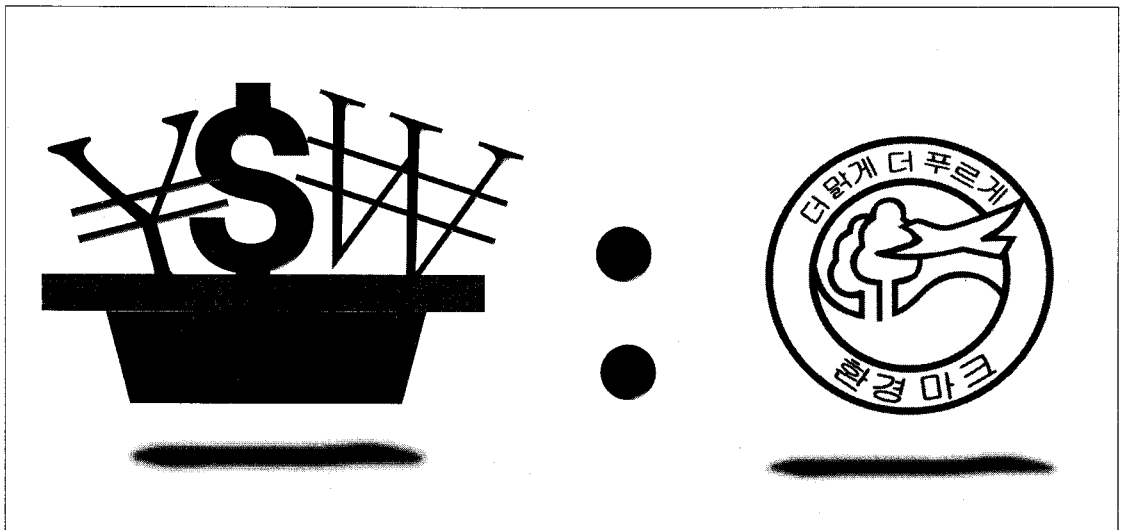
샌미겔도에서 태어난 2천여 마리의 물개중 지난 7월부터 10월 1일까지 죽음을 맞은 물개는 1천5백마리에 달한다고 델롱 연구원은 말했다. 또한 지난 7월이래 이 섬에서 출생한 2만3천마리의 캘리포니아 바다표범중 9월까지 1천2백마리가 죽었다고 그는 말했다.

사망률은 이유기중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샌미겔 등 채널제도에서는 바다표범 사망률이 출생후 1년사이 정상치 수준보다 3배나 많은 66%에 달한다고 델롱 연구원은 말했다.

다행히 살아남은 것들은 먹이를 찾아 더 멀리 나가는 위험을 무릅쓰거나 캘리포니아 해변으로 오르다 환경단체들에 구조되기도 한다.

한편 자연보호 단체들은 일반



사람들이 물개를 구한다고 이들의 서식지를 찾지 말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어미 물개들의 접근을 막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세계 환경단체 교토의정서 비난

지난 12월 11일 교토에서 체결된 온실가스 감축 교토의정서에 대해 세계 각국 정부측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와 경제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입장에서 반발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정서는 선진국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으며 세계 최대 오염국가에 대해 화석연료 방출 증대를 허용하는 등 '완전히 부적절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의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환경적, 경제적 손실 증대를 막는데 아무런 보호책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석탄과 석유 연소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야생동물기금(WWF)도 성명서를 내고 주요 오염원 배출 국가에 대해 빠져나갈 구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등 2년 6개월간의 협상이 결함 투성이로 끝났다고 비난했다.

'지구의 친구들'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정서가 지구온난화 방지에 실패할 것이며 심지어 일련의 빠져나갈 구멍들로 인해 21세기 초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대시

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토 도키오 도쿄전력 부회장은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노후가 없어 매우 불리하다며 국제시장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엔화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3대 자동차제조업체들과 석탄·석유업계 등도 클린턴 행정부가 당초 약속을 깨고 미국인 근로자 수백만명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이번 의정서에 합의했다면서 정부를 질책하고 나섰다.

일, 기업활동·경제성장 위축 우려

일본은 지난 12월 11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온실가스 삭감 목표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6%로 합의된 데 대해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과 경제성장 감축 등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통산성은 당초 오는 2010년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90년도 기준으로 5% 삭감할 경우 일자리가 1백17만~1백75만명분이 줄게 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1.7~2.6%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목표보다 1% 포인트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사감을 위해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 투자를 할 경우 수익이 악화되기 때문에 사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삭감의무가 없는 개도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경우 지난 몇년간 급격한 엔고로 인해 동남아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업체가 늘면서 초래된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산화탄소를 1t 줄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본의 경우 2백68달러로 미국(82달러)과 유럽연합(1백30달러)의 2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같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석유자원이 없는 일본이 과거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대폭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추가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현재의 경제 구조를 보다 '에너지절약형'으로 전환할 경우 환경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돼 성장의 새로운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있다.

일본은 현재 연 2천억달러로 추산되는 환경관련 기기 및 서비스 시장이 이번 교토회의 합의를 계기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적인 수준의 일본 환경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잘만 활용하면 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